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정*영
파견국가	영국	파견도시	Colchester, Essex
파견대학	University of Essex	파견기간	09.2015-06.2016
귀국여부	아니요, 6월 23일에 귀국 예정입니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University of Essex는 Essex주의 Colchester라는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ssex 주는 영국의 동부 쪽에 위치합니다. 콜체스터의 중심지인 콜체스터 타운에서는 버스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콜체스터 기차역에서 London Liverpool street station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런던에 가끔 놀러 가기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주변 분위기는 주택가이고 들판들도 많아서 약간 시골 분위기가 나고 조용한 편입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에 꽤 크고 평일에 24시간 운영하는 Tesco 마트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규모는 순천향대보다 작습니다. 수업 듣는 건물들이 스퀘어에 모여있어서 처음에 강의실 찾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코드를 입력하면 길을 알려주는 Find your way 라는 이 곳 대학의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학교 내에 규모가 꽤 큰 Gym이 있어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이 곳을 이용하였습니다. 학교 내에 호수도 있는데 그 곳에서 바비큐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호수 옆에는 Silberrad student centre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학생 서포트 해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학교 관련하여 결제할 것이 있으면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혹은 이 곳에서 도서관처럼 공부나 컴퓨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큰 수업이 있으시다면 Ivor crewe lecture hall 이라는 강당을 이용하시게 되거나 LTB 빌딩을 이용하게 되실 겁니다. 비즈니스 관련 전공이시라면 신설된 Essex business school 빌딩을 이용하게 되실 겁니다. 전체적인 이 학교의 분위기는 반은 영국인 학생들 반은 유러피안 포함 타국에서 온 학생들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들이 많습니다.</p>

수업	<p>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영국인 교수님을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세분을 빼고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쪽에서 오신 분들의 억양이 강한 영어 발음을 듣게 되신다면 처음엔 조금 힘들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영국 교수님들도 출신에 따라 억양이 천차만별이라서 그 점은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수업 내용은 한국에서 배웠던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수업마다 교수님들이 강의만 하는 Lecture 수업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전 시간에 배운 수업내용을 토대로 토론하는 Seminar 수업이나 경제학수업 관련 문제풀이를 하는 Class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eminar 수업과 Class 수업 시간표 분반은 무작위여서 다른 과목과 충돌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하게 되면 비영어권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곧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어 보충 수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따로 Credit이 주어지지 않아 학점인정은 되지 않고 대신 무료입니다. 수업준비는 Moodle 사이트나 orb.essex.ac.uk 사이트에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수업자료를 이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강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피피티 자료를 이용하였고 강의 책은 필수인 경우에만 샀습니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고 한 학기 단위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Assessment 같은 경우는 coursework 즉 에세이로만 평가되는 수업도 있고 에세이 반, 파이널 시험 반으로 평가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Coursework 비율은 학과, 수업마다 다릅니다. 제가 들었던 Initial Spanish는 50 per cent Coursework Mark, 50 per cent Final Exam Mark 였고 중간 시험은 따로 없고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coursework 시험을 보았습니다. 경제학 수업들은 대체로 50 per cent Essay Mark, 50 per cent Final Exam Mark 였습니다. 시험 기간은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3월 말부터 한 달간의 이스터 방학 이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이루어집니다. 주로 각 수업마다 시험일이 다 다릅니다. 시험 기간이 긴 만큼 이 곳 학생들은 긴 시간을 시험공부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p>
----	---

프로그램 운영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은 도착 후 첫 주에 이루어집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 곳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교환학생들끼리의 티타임도 만들어주어서 각 국에서 온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담당부서는 Essex Abroad이고 그 곳 카운터로 가면 교환학생 담당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은 할로윈 파티나 콜체스터 축구 관람, 뮤지컬 관람 등등이 있었습니다. 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첫 주에 이루어지는 Society 가입(동아리가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여러 동아리에 들어서 원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은 한국인이 거의 없어 제가 한국 동아리에서 한국어를 한 학기 동안 가르쳤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영국 날씨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바람이 많이 세게 불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튼튼한 접이식 우산이나 우비 또는 모자 달린 야상 같은 것을 준비해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 곳 사람들은 웬만한 비는 거의 맞고 다닙니다. 이 곳 콜체스터는 영국 다른 지방 보다는 영국 내에서 날씨가 마일드하고 꽤 좋은 편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날씨보단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편 엄청 좋습니다. 겨울은 한국보단 덜 춥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가 낮게 느껴질 수 있으니 패딩이나 야상 하나 정도는 가져오셔야 합니다. 기숙사마다 라디에이터가 있긴 하지만 겨울에는 꽤 추우므로 수면 양말이나 수면 잠옷을 챙겨오시는 게 좋습니다. 주로 5월 전까지는 날씨가 10도 내외 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졌다가도 갑자기 쌀쌀해 질 수 있으니 그 점 유의하세요.</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영국은 유럽 내에서 유럽 타국가들 보다 안전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런던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소매치기나 낯선 사람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뭐 딱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곳이나 밤 늦게만 돌아다니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영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꼈고 콜체스터 또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p>

<p>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저는 처음에는 University Quay에 살다가 다음 학기 때 The houses 로 기숙사를 옮겼습니다. Quay 같은 경우는 룸컨디션이 더 좋습니다. 더 깔끔하고 방이 좀 더 넓고 방음도 더 잘되고 좀 더 신식입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고 걸어서 넉넉히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셔야합니다. 플랫메이트는 5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The houses 는 캠퍼스 안에 있어서 강의실까지는 5분 내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식이고 방음이 잘 안됩니다. 문 여닫는 소리가 워낙 커서 좀 거슬렸습니다. 플랫메이트는 5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한 flat 마다 주방이 있어서 이를 플랫메이트끼리 쉼어하고 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정합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해줍니다. 학교 내 기숙사는 모두 1인 1실이고 화장실 쉼어 여부와 플랫메이트 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밤낮없이 시끄러워도 좀 더 social 한 것을 원하시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한 The tower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학교 내에 2개의 Bar(pub)이 있어서 친구들과 맥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행아웃하기 좋습니다. EPL시즌에는 축구경기를 펍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Student union bar에는 자그마한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음식점은 대략 4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첫 학기 때는 점심 때 주로 Canteen에서 사먹었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기숙사에서 거의 해먹었습니다. 가격은 한 끼당 4~6파운드 정도 입니다. 주변에 Let's go 라는 중국슈퍼마켓과 타운센터에 있는 M&M이라는 중국슈퍼마켓에 한국 기본 음식재료들을 조금씩 판매해서 한국 음식을 가끔 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콜체스터 내에 중국식당은 많지만 한국식당은 없습니다.</p>
<p>교통</p>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첫 기숙사에서 살 때는 걸어 다니거나 학교까지 61번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Firstbus 라는 버스 회사의 1년 이용권을 학기 초반에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캠퍼스 안이었기 때문에 걸어 다녔습니다. 콜체스터 타운 센터로 나갈 때는 61번 버스나 62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년 이용권을 거의 30만원 주고 샀습니다. 타운 센터나 콜체스터 기차역까지 왕복 3파운드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용권 사시는 게 더 편리하실 겁니다. 도시 이동할 때는 기차나 national express 코치를 이용하였습니다. 기차를 많이 이용하실 거면 16-25 youth rail card 를 사시면 기차를 이용할 때마다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기차를 탈 때마다 레일카드를 늘 소지하셔야 합니다. 불시에 검사해서 없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National express 도 Youth card가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20만원	1년 왕복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없음
보험료	국내 보험 : 50만원 영국 비자 등록할 때 NHS 보험: 150파운드	영국 비자 신청할 때 NHS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하는데 이 보험으로 학교 내 헬스센터에서 진료 가능합니다.
숙소	총 대략 800만원	
식비	일주일에 50파운드 정도	밖에서 사먹으실 경우 더 듭니다.
교통비	1년 Pass 대략 30만원	
책값	15만원 정도	
기타1	여행비용	
기타2	쇼핑	
기타3	비자비용	
합계	대략 2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모자 달린 후디를 챙겨오세요. 날씨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만 시간제한이 있고 교환학생 입장으로서 추천 안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신라면은 테스코에도 팔고 한국 음식 재료는 중국 슈퍼마켓에서 구입 가능하니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밥술 같은 경우는 영국 아마존에서 싸게 구입 가능합니다. 비타민 같은 것도 꼭 챙겨 드세요. 흐린 날이 많다 보니 비타민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시기전에 영국 드라마를 통해 영국 발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무작정 오시면 처음에 오셔서 발음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럽국가인 만큼 많은 나라를 여행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계획도 잘 세워서 오세요. 그리고 영국 여행 책 하나 정도는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국가들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영국에 머무는 만큼 영국 여행 많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Essex 대학교로 처음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서 출국 전에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많은 것들을 학교에 도착한 뒤에 깨닫고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와 영국문화 자체를 워낙 좋아했던 터라 많은 기대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번 교환학생 생활에서 좋은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2년 전에 영국 여행 이후로 영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순천향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학교 측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타지에서 생활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지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가끔은 한국이 그리고 한글이 그리웠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고 에세이를 쓰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이 곳에서 만난 친구들과서 서로 도와가고 격려해주고 고민을 나누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여러 문화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 곳 친구들 특히 영국친구들은 절대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극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소셜활동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곳에서는 한국인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영어를 배우기 아주 좋은 환경이지요. 앞으로 Essex 대학에 오시게 될 학생 분들도 많은 것을 이 곳 학교에서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부터 생각했던 영국 워킹홀리데이를 졸업 후에 올 생각입니다. 그만큼 영국과 이 대학교는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무리를 멋지고 뜻 깊은 교환학생 생활로 끝맺게 되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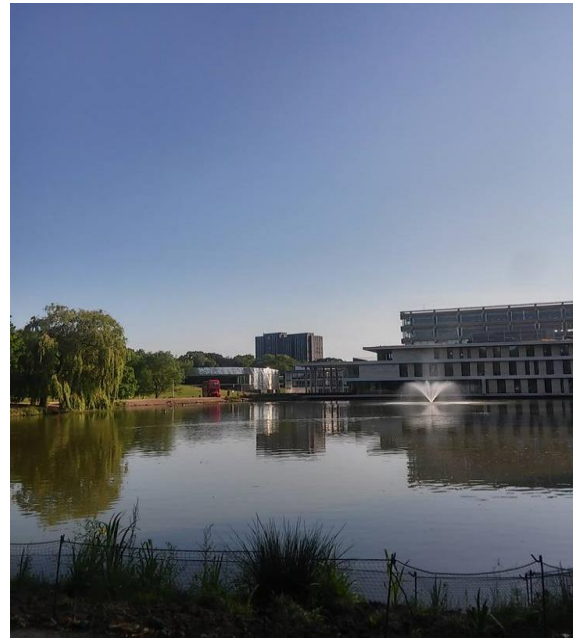
학교 호수 옆에서 BBQ 파티



여행 society에서 Cambridge 여행



교환학생 친구들과 런던 여행



학교 도서관 옆 호수



SU bar, 학교 내 pub



기숙사 The houses